

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76억원 증액... 군의회 제출

임실군이 5,14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년 본예산 대비 76억원(1.51%)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26억원(2.65%) 증가한 4,9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원(37.15%) 감소한 236억원이다.

군은 경기 침체에 따라 3년 연속으로 국가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5천억원 본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천만관광 명품도시 임실 실현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5억원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30억원 △육정호 생태담양로 순환체계

구축사업 21억원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사업 22억원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8억원 △임실 장미축제 육성 3.4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 △관정개발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억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에 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14억원 △오수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 35억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0억원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

업 25억원 △운암면 쌍암지구 앞뜰 개발사업 2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임실역 KTX 정차 설계비 4억원도 반영했다.

이 밖에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보험통합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임실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 최선을 노력할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치즈산업 지속가능성·경쟁력 강화 모색

김정홍 군의원, 생태계 진단·혁신과제 모색 정책세미나 좌장 맡아

임실군의회 김정홍 의원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임실치즈산업 생태계 진단 및 혁신과제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아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

세미나는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 지속성을 위한 과제 모색 △임실치즈 산업 생태계 진단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확장을 위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는 김응를 박사(前 제주우

유 부대표)가 "임실치즈 제품,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임실치즈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오광진 前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정석근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소장(농화박사), △홍미영 감성목장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실치즈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 주민과 산 업계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성호 남원 부시장, 행안부 찾아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남원시는 이성호 부시장이 1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업

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남원 부시장은 1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국내 유일한 현대 옷길 목공예관 건립 △한옥체험시설 조성 △시립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남원관광지 주차장 정비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 보강 △식장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 △산동 부절마을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 정비 △죽향동 교통안전 보행자 보호시설 개선 등 총 8건에 60억원이다.

특히 생활인구 유지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조성과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이성호 부시장은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디지털 포용 사회 선도

시 대표 누리집 등 주요 13개 사이트,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남원시는 시 대표 누리집 www.namwon.go.kr 등 주요 13개 사이트가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패거리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품질 인증(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기관에서 매년 심사와 인증받는다.

남원시는 행정 포털, 문화관광, 평생학습관,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통합예약 포털 등 총 13개 주요 누리집에 대하여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며, 이번 품질 인증에서 정보 접근 약자의 편의를 위한 꾸준한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개선으로 전문가와 사용자 심사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여 차별 없는 웹 서비스 제공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남원시 이영미 홍보전산과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장애인·고령자,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웹 환경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누리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30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남원시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성철)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사람의 광장에서 남원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마당을 열어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30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해 풍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남원시작전에서 추(秋)제를 시작, 농산물 판매장터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했다.

농업을 사랑하는 남원시 농업인과 시민의 화합을 위한 퍼포먼스로 준비한 1,000인을 위한 비빔밥은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소독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남원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로 금지면 배경회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업인대상에 식량작물부문 보절면 권승통씨, 파수부문 대강면 이조현씨, 육산부문 갈치



동 지성주씨, 농산물유통부문에 문봉을 이태성씨가 수상하였고 사과품평회 대상 아영면 박영숙씨, 금산 산동면 김승준씨, 은상 문봉을 유정문씨, 동상 인월면 김태균씨, 김병오씨가 수상했다.

농업발전에 기여한 표창으로 산내면 양보애씨, 송동면 정원석씨에게 국회의원상을 전수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2가정에 화목가정상을 수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 4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6년도 예산편성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열어

순창군은 지난 1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건축 재정기조 속에서도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군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와 사무국장 등 6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순창군의 재정 여건과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심사 기준과 검토 절차가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기본소득사회로의 점진적 진입에 대비해, 사회단체가 지역 공동체 내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과제가 강조됐다. 또 재정 한계와 함께 보조사업 목적에 충실한 운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신규 공직자 대상 시장과의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11일, 예촌 사랑마루에서 2025년 신규 발령 공직자 48명과 최경식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규 임용된 공직자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짧은 공직자들과 시장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기존의 설명 중심의 간담회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병준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팀별 협동을 통해 시장과 대결하는 △도전! 시장님을 이겨라! △시정현안 초성퀴즈 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공직자와 시장이 함께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됐다.

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는 신규 공직자들이 직접 시장에 제출한 질문을 바탕으로 공직 생활의 고민부터 시정 발전 방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장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순창군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큰 14개 부서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이지만, 국내나 지방세에 비해 납세 의식이 낮아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해 강력한 징수 전략이 요구된다.

순창군은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변호관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